

## Verdict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실질금리 상승이 금의 보유 기회비용을 구조적으로 높여 5,000달러 선 붕괴가 정당한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 있음. VIX 26.78의 공포 국면에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유동성 확보용 매도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DXY 하락에도 금이 동반 하락하는 디커플링이 금리 경로가 최상위 가격 변수로 작동함을 시사한다는 판단임. 주간 고점 대비 약 14% 하락(drawdown\_from\_peak -13.98%)이 추가 하락의 서막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임.

하지만 직전 판정(3/21)의 무효화 조건인 '실질금리 2.10% 이상 상승 + 금 4,400달러 하회'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B 가설 유지가 기본값임. 현재 실질금리는 DGS10 4.25% - T10YIE 2.38% = 1.87%로, 직전 판정 시점(1.87%)과 동일하며 무효화 임계치 2.10%와 23bp 거리가 유지됨. 금 가격 4,574.9달러 역시 4,400달러 지지선을 174.9달러 상회하고 있어 두 조건 모두 미충족임. 결정적으로, 은(SILVER)의 고점 대비 -39.46% 급락은 금(-13.98%)의 약 2.8배에 달하며, 이는 산업금속 성격이 강한 은이 경기 둔화 우려와 유동성 청산에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전형적 패턴으로, 금의 하락이 펀더멘털 훼손보다 유동성 이벤트에 의한 오버슈팅임을 시사함. DXY가 99.65로 100선 아래에 머물고 있음에도 금이 하락한 디커플링은 단기 유동성 청산 압력의 결과이지 구조적 전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T10YIE 2.38%가 시사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금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Action:** 금(GOLD) 신규 롱 진입을 자제하고, 기존 포지션 소폭 조정을 유지하며 실질금리(DGS10-T10YIE) 2.10% 접근 여부와 금 4,400달러 지지선 이탈 가능성을 모니터링 강화할 것.

**Invalidation:** 실질금리(DGS10 - T10YIE)가 2주 내 2.10% 이상으로 상승하며 금이 4,400달러를 증가 기준 하회하는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연준 위원들의 패파적 발언 강화 또는 CPI 서프라이즈로 실질금리가 2.00% 이상으로 급등하여 금의 기회비용이 임계 수준에 근접할 리스크, 기술적/포지셔닝: 금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추가 청산(long liquidation)이 4,500달러 지지선을 시험하며 기술적 매도 연쇄를 촉발할 리스크, 이벤트: VIX가 30 이상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재진입 시 2020년 3월식 유동성 청산이 재현되어 금이 중앙은행 매수세를 압도하는 낙폭을 기록할 리스크

## Macro Picture

**Regime:** central\_bank\_bid

**Key Themes:** 통화정책 경로 수정에 따른 단기 급락, 중앙은행의 구조적 금 수요(Floor), 지정학적 리스크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Dominant Narrative:**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온스당 5,000달러 선이 무너지며 이번 주 약 7%대(5,000달러 대비 4574.9달러 도달 시 약 8.5% 하락)의 급락세를 보임. 그러나 JP모건 등 주요 기관의 연말 6,300달러 강세론과 중국인민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의 실물 금 매입이 강력한 하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공존함.

**Reality:** CPI 327.46(2026-02)이 시사하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4.39%의 높은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이전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임. 다만 DXY가 99.65로 100선 아래에 머물고 VIX가 26.78로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된 상태에서, T10Y2Y 스프레드 0.51의 정상화 흐름은 경기 둔화 우려 속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하는 복합적인 환경을 형성함.

## Hypotheses

**Key Question:** VIX가 현 수준(26.78)에서 하향 안정화(20 이하)될 때 금이 4,700달러 이상으로 반등하는지, 아니면 실질금리가 2.0%를 돌파하며 금이 4,400달러 지지선마저 하회하는지—즉 유동성 청산 해소 후 금의 가격 경로가 중앙은행 매수세에 의해 복원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별 기준임.

## Tensions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보유 기회비용 증대 사이의 충돌임.

0.70

**Narrative:** 중앙은행의 실물 금 매입과 주요 기관의 연말 6,300달러 강세 전망이 강력한 하단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함.

**Reality:** 10년물 국채금리가 4.39%에 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온스당 5,000달러 선이 붕괴, 주간 약 7%대의 하락세를 기록함.

GOLD

US10Y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시 안전자산으로 상승한다는 통념과 달리 시장 공포 심리 속에서 현금 확보를 위한 유동성 공급원으로 작동함.

Narrative: 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환경에서 금이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주장함.

Reality: VIX가 26.78로 급등하는 패닉 국면에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닌 유동성 확보를 위한 'ATM'으로 활용되며 2020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임

GOLD VIX SPX

달러 지수의 하향 안정화가 금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나 금리 경로 수정이 이를 압도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함.

Narrative: DXY가 99.65로 100선 아래에 머물며 달러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 가격의 상대적 강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

Reality: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CPI 327.46)과 금리 동결 우려가 실질 금리를 압박하며 고점 대비 약 8.5%의 하락세를 시현함

GOLD DXY US10Y

## Eval Scores

PASS

|               |                                  |     |
|---------------|----------------------------------|-----|
| Overall       | <div style="width: 100%;"></div> | 5.0 |
| Tension       | <div style="width: 100%;"></div> | 5   |
| Hypothesis    | <div style="width: 100%;"></div> | 5   |
| Evidence      | <div style="width: 100%;"></div> | 5   |
| Verdict Logic | <div style="width: 100%;"></div> | 5   |

**Feedback:** 2026년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데이터의 수치적 내적 일관성이 매우 뛰어남. 특히 금/은 비율(Gold/Silver Ratio)을 통해 단순 가격 하락과 유동성 경색(Liquidity Event)을 구분하려는 접근과 실질금리 무효화 임계치(2.10%)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며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논리가 탁월함. 다만 'CPI 327.46'이라는 절대 지수값보다는 전년 대비(YoY) 변화율을 긴장 포인트의 'Reality' 근거로 제시했다면 인플레이션의 끈질김을 더욱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임. 차기 분석에서는 중앙은행의 분기별 매입 예상 규모(톤 단위)를 가설 B의 지지 논거에 추가하여 'Central Bank Bid'의 실체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함.

시장의 뷰: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실질금리 상승이 금의 보유 기회비용을 구조적으로 높여 5,000달러 선 붕괴가 정당한 가격 조정이라고 보고 있음. VIX 26.78의 공포 국면에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유동성 확보용 매도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DXY 하락에도 금이 동반 하락하는 디커플링이 금리 경로의 최상위 가격 변수로 작동함을 시사한다는 판단임. 주간 고점 대비 약 14% 하락(drawdown\_from\_peak -13.98%)이 추가 하락의 서막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임.

**결론: 시장이 틀렸음: 금의 급락은 VIX 급등에 따른 마진콜·유동성 청산이 유발한 일시적 오버슈팅이며, central\_bank\_bid 레짐 하에서 중앙은행의 구조적 실물 매수세가 4,400~4,500달러 구간에서 강력한 하단을 형성하여 조기 반등을 촉발할 것임. 현재 가격은 매크로 펀더멘털 대비 과매도 상태임. [MEDIUM]**

하지만 직전 판정(3/21)의 무효화 조건인 '실질금리 2.10% 이상 상승 + 금 4,400달러 하회'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B 가설 유지가 기본값임. 현재 실질금리는 DGS10 4.25% - T10YIE 2.38% = 1.87%로, 직전 판정 시점(1.87%)과 동일하며 무효화 임계치 2.10%와 23bp 거리가 유지됨. 금 가격 4,574.9달러 역시 4,400달러 지지선을 174.9달러 상회하고 있어 두 조건 모두 미충족임. 결정적으로, 은(SILVER)의 고점 대비 -39.46% 급락은 금(-13.98%)의 약 2.8배에 달하며, 이는 산업금속 성격이 강한 은이 경기 둔화 우려와 유동성 청산에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전형적 패턴으로, 금의 하락이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유동성 이벤트에 의한 오버슈팅임을 시사함. DXY가 99.65로 100선 아래에 머물고 있음에도 금이 하락한 디커플링은 단기 유동성 청산 압력의 결과이지 구조적 전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T10YIE 2.38%가 시사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금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 금(GOLD) 신규 롱 진입을 자제하고, 기존 포지션 소폭 조정을 유지하며 실질금리(DGS10-T10YIE) 2.10% 접근 여부와 금 4,400달러 지지선 이탈 가능성을 모니터링 강화할 것.

무효화: 실질금리(DGS10 - T10YIE)가 2주 내 2.10% 이상으로 상승하며 금이 4,400달러를 증가 기준 하회하는 경우

